

## 표류하고, 충돌하고, 각성시키는 경계로부터

애매한 틈이자, 갈등이 발발하는 경계에서 우리의 사고를 버리는 전시 셋.

〈모든 것은 사막으로 돌아간다〉 과거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 지금 밧줄에 묶인 모로코의 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요? **박신영 작가**는 비현실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인간과 동물, 문명과 자연,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새롭게 조망합니다. 과거 모로코를 여행한 작가는 몇 년간 좀처럼 소화되지 않는 여행의 기억을 살피봤어요. 원피스를 입은 원숭이, 우리에게 갇힌 사막여우는 그가 유년 시절 동물원에서 본 물개를 자꾸만 떠올리게 했죠. 작가는 이로 인한 마음의 동요를 자신의 조형적 규칙에 따라 재현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결국엔 동물과 같은 곳으로 향하는 미라, 제목은 ‘보호소’인데 사람 손에 목숨이 달린 물고기 등 재현된 이미지는 생명의 기원과 순환, 길들임의 과정을 암시하죠. 이는 기억의 흔적이 작가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드러냅니다. 경계에 서서 조망한 풍경은 문명에 거세된 본능을 소환하기도 해요. 프리즈 서울에 이어 10월 25일까지 선보이는 이번 박신영 작가의 개인전 〈모든 것은 사막으로 돌아간다〉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와 종이, 나무 등의 매체를 활용한 판화, 드로잉, 입체 작품을 선보입니다. **장소 디스위켄드룸**



박신영 개인전 '모든 것은 사막으로 돌아간다' 모습.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박신영, back view of 'The Shelters(Fish)', 2025.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박신영, '모래 속으로', 2025, Silkscreen monotype on paper, 29X38.4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